

2015 U대회 성화 광주·전남·전북 달군다

오늘 광양·순천시 봉송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가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봉송길에 오른 지 16일째인 25일 전남에 첫 입성한다.

24일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성화는 25일 경남 진주에서 하동을 거쳐 광양에 들어온 뒤 순천시청에 안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21면>

26일에는 구례, 곡성, 담양을 거쳐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로 입성해 28일까지 머물게 된다. 특히 26일에는 담양 죽녹원 앞과 메타세쿼이아길, 전주 오목대 입구~경기전 등에서 성화 봉송을 알리는 풍물놀이와 비빔밥퍼포먼스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화는 29일 익산, 논산, 군산 지역을 돌아 다음날인 30일에는 영광, 함평, 무안 지역민을 만난다. 7월 1일에는 목포, 영암, 나주를 거쳐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소재 U대회 조직위에 안치된다.

광주 U대회 성화는 7월 2일 호남대를 시작으로 5개 구를 돌며 봉송되고, 3일에는 조선대, 광주교대, 전남대, 무등야구장을 거쳐 개최식이 열리는 광주 U대

■ U대회 성화 봉송 일정

25일 : 광양, 순천
26일 : 구례, 곡성, 담양, 전주
29일 : 익산, 논산, 군산
30일 : 영광, 함평, 무안
7월1일 : 목포, 영암, 나주
2·3일 : 광주

회 주경기장에 도착하며, 특별 주자가 성화대에 최종 점화한다.

특히 이번 광주지역 성화봉송에는 '미녀공사' 기보배, 고베 U대회(1985년) 유도 금메달리스트 윤용발, 80년대 아마복싱의 대표 주자 김동길 등이 주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U대회 성화는 지난 5월18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해외 성화를 채화한 뒤 지난 2일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서 국내 성화를 채화해 합화했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60곳 총 3700km 구간을 3150명의 주자들과 '장조'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돌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르스 민감하던 대만 '광주는 청정' 참가 결정

한국의 메르스 여파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대만이 광주 U대회에 예정대로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 선수단의 광주 입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이 광주를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강조함에 따라 대회 흥행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매

체 보도에 따르면 허위페이 대만 체육 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광주U대회에 대해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서장은 "대회 개최지인 광주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의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역대 U대회 대표팀 규모 중 가장 많은 237명의 선수를 파견, 16개 종목에 출전한다. 27일 대표팀 선발대가 광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베네수엘라 선수단 55명(선수 41명, 임원 1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광주 U대회 선수촌에 첫 입성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친盧 총장 NO” 怒한 비노 부글부글

새정치 호남 의원들 거센 반발
박지원, 향후행보 문자 “死即生”
주승용 “10월 신당론 거셀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등 당직 인선에 대해 호남 정치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당장 문 대표가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 민심은 문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통해 당의 화합과 혁신의 동력을 마련하고 정권 창출의 토대를 구축하기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당내 비주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친노 성향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을 강행하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권 창출의 비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문 대표의 인선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내 화합 없이 어떻게 혁신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우려도 컸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특정 계파가 독점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하며 “여러 동지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일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질의에 “사즉생(死即生)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동안 외곽에서 친노 지도부에 대한 경고 발언을 해왔던 박 의원이 문 대표에 직접 격탄을 날리며 별도 움직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정치권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으로 친노-비노 갈등이 고조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내분에 빠진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오른쪽)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 문재인 대표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주목하고 있다.

호남 정치권과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있는 박 의원이 독자 행보에 나선다면 신당 창당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도 이날 문 대표의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호

남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며 당의 앞날에 많은 갈등과 불신이 확대될 것”이라며 “혁신위의 결과물을 지켜봐야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10월 전후 신당의 회오리가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의 요

구는 정권 창출의 비전에 중점이 찍힌 반면 친노 진영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한 뒤,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이 분열의 프레임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권 창출은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감동의 현장 SNS 통해 세계 곳곳 생생 전파”

함께 해요! 성공 U대회

③ 김가현 유니브로 학생기자

“세계 대학생의 스포츠 축제, 그 감동의 현장을 대학생의 시각으로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경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로 실시간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학생기자 김가현(호남대 무역경제학과 2년)

씨는 24일 “1년 6개월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광주 U대회 순간순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세계 대학생 온라인 방송국인 유니브로(Uni-Bro·University Brothers) 소속 기자인 김씨는 대학생 기자 70여명과 함께 대회 경기 주요 장면과 참가 선수들의 사연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SNS에 올리는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자신이 취재하고 제작한 광주 U대회 소식을 지역민은 물론 세계인 누



구나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대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유니브로 주관기관인 호남대 통합뉴스센터 소속 대학생 기자로, 현장 언론인과 전문가로부터 PD·아나운서·촬영·편집 기술을 배우는 실력파이기

도 하다.

김씨는 U대회 기간 열릴 ‘세계청년축제’ 등 부대행사 현장에도 출동해 세계 각국의 청년문화를 영상에 담아 SNS와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타 선수가 없는 비인기 종목에 담긴 각종 사연도 집중 취재해 시청자의 이목을 끌겠다는 욕심도 내비쳤다.

김씨를 포함 70명의 대학생 기자단은 3인 1조의 보도단 단위로 구성돼 취재에 나서게 되며, 경기 내용과 함께 그 뒷얘기를 하루 3~4개의 리포팅 영상으로 제작해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Global Premium Partner: SK C&C, SK Telecom, KIA, 마시야나항공, SAMSUNG, BLACKYAK, 롯데정신요리, 광주은행, HYUNDAI, LF, PLAZA, LG, 서울신문

Official Partner: 롯데정신요리, 광주은행, HYUNDAI, LF, PLAZA, LG, 서울신문

Official Sponsor: 롯데정신요리, 광주은행, HYUNDAI, LF, PLAZA, LG, 서울신문

기간 및 장소 : 2015. 7. 3 ~ 14(12일간),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종목 및 규모 : 21개(정식13개/선택8개), 170여개국 2만여명

정식종목: 기게체조, 농구, 다이빙, 리듬체조, 배구, 수구, 수영, 유도, 복싱,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
선택종목: 골프, 배드민턴, 사격, 야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